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혜월 스님(1)

경허 스님, 그 한 물건을 일러라

혜월 스님, 신골 치는 '탁' 소리에 환해져

혜월 스님은 19세부터, 은사인 혜안 스님 부탁으로 서산 천장사에서 경허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을 즈음, 스님은 경허 스님을 좇아서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배우게 된다.

이 <수심결> 서두에 임제 선사사의 '지·수·화·풍의 네 가지 물질적 요소는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고 허공도 또한 그러하거나, 다만 네 눈앞에 항상 뚜렷하여 홀로 밝고 형상 없는 그것이라야 비로소 법을 말하고 법을 듣느니라' 라는 구절에 이르러, 혜월 스님은 큰 의문을 일으키게 된다. "묵전에 뚜렷하고 형상 없이 홀로 밝은 것(歷歷孤明 物形段者),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회두

한 물건은 설명 불가능한 것
의심 끊어진 곳에서 깨닫게 돼

가 자리잡은 것이다. 이때 경허 스님은 다시 "어느 물건이 설법하고 청법하느냐? 형상 없으면 뚜렷한 한 물건을 일러라."

답을 이르지 못한 혜월 스님은 이로부터 늘 '대체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꼭 차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오직 이 한 생각 뿐이었다. 1주일이 되던 날, 스님은 잠든 한 켠에서 다 삼아놓고 마지막으로 신골(脛)을 짚는데 '탁' 하고 소리가 들리자, 그 순간에 깨어났다. "이것이 무엇이냐?"

혜월 스님이 타파한 '한 물건(一物)'은 남악화양 스님의 깨달음과 유사하다. 육조 대사가 물기를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할 때, 화양은 어쩔 줄 모른다가 8년만에야 깨치고 나서 말하기를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한 공언이 그것이다.

여기서 '무슨 물건'이 바로 '이것

고' 화두의 근원이 된 것이다.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이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설명하기 위해 마음이니, 불성(佛性)이니, 주인공이니, 무일물(無一物)이니, 무위진인(無位真人)이니 하는 등의 이름을 붙이지만 실은 설명이 불가능한 '그 무엇(거시기)'이다. 모양과 형상이 없기에 말이 끊어지고 마음 길이 사라진 곳에서 스스로 체험하는 수밖에 없는 '물건 아닌 물건'인 것이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는 바라제 존자가 이견왕(異見王)으로부터 불성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불성은 작용 속에 있다'는 취

지로 대답하여 왕을 깨닫게 했다는 이런 계승이 전한다. "태내에 있

으면 몸이요, 세상에 살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본다고 하며, 귀에 있으면 듣는다는 것이며, 코에 있으면 향기를 분별함이고, 입에 있으면 말하는 것이며, 손에 있으면 짚는 것이요, 발에 있으면 걸어가는 것이다. 두루 드러내면 모래알 같이 무수한 세계를 다 아우르고, 거두어들이면 하나의 티끌에 있다. 올바르게 알아차리는 자는 그것을 불성이라 알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는 정혼(精魂)이라고 한다."

이견왕도 이 계승에 깨달았는데 그 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할까? 그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당체(當體)에 대해 진실로 의심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주와 인생을 세웠다 허물었다 하는 '깨달음의 성품'(覺性)이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의심해야만 화두가 저절로 들리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생각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김성우 객원기자



“깨달음의 성품을 보면 그대가 곧 부처다”

居士禪의 리더들 ② 현정선원 대우 거사

“이 모든 일은 누군가 작용하는 이가 있어서 공력(功力)을 들여서 밭을 하고, 알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저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靈覺性)이 중생의 근기와 인연에 감응해서 지음 없이 나뉘는 '어래의 미묘한 작용'(如來妙用)인 겁니다. 짓는 자가 없는데도, 아니, 오히려 짓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작용 없는 작용'(無作之作)이 다함이 없으니, 이보다 더 미묘하고 신령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 서초구 방배2동에 소재한 현정선원(顯正禪院), 78세의 노 거사가 40여 년째 수행자를 대상으로 고요하면서도 단호하게 주객을 초월한 무공용지(無功用智)를 설하고 있다. 어떠한 주제도 정해 진 바 없고, 즉흥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지는 즉문즉답(卽問卽答)으로 끝없이 일어나는 본별식을 깨부수는 대우(大愚) 거사의 법문은 물 흐르듯 거침이 없다. 걸림 없는 설법이 선종 어록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 마치 옛 조사가 살아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하지만 그의 설법은 간화선을 비롯한 다양한 수행을 오랫동안 해온 구참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상승의 법문이며, 일반 불자들이 알아듣고 체득하기에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2002년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현암사)란 첫 설법집을 냈을 때 처음 인터뷰를 가진 대우 거사는 5년의 세월을 훌쩍 넘긴 고령에도 변함없이 확산에 한 설법에 임하고 있었다.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법문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된 것이지만, 정기법회의 횟수는 달라진 게 없다.

누구를 만나든 끊임없이 상대의 사랑·분별심을 부수어서 지금 있는 그 모습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임을 깨우쳐주는 대우 거사는 수행과 관련한 그 어떤 '좋은

것도 없느니라 못하다'(好不如無)도 강조한다. 이 마음은 본래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으므로 아무것도 밖에서 얻을 것이 없기에, 어떤 특정한 수행 방편에 의지하여 반복적으로 갖고 묶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만약 현재 분별하고 운동하는 '신령한 깨달음의 성품'을 알면 '당신의 마음'이 곧 그대여 부처여겨볼, 어찌 허망하게 밖으로 구하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겠는가?"라며 반문하곤 한다.

대우 거사는 이처럼 모든 수행방편을 배제하고 오로지 정답과 설법만으로 불법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과학도 출신의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여 년간 단



현정선원에서 수행자들에게 열거하는 대우 거사.

사랑·분별심 깨뜨리는 질문과 대답으로

무심히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는 힘 길러줘

한 차례도 승진을 하지 않은 채 있다가 어느 날 홀연히 깨달음을 얻어 설법에 나서게 됐다는 이야기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48세에 문득 깨달음을 얻고 일상인으로서의 삶을 접었다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그로서는 좌선과 염불, 특정 등 전통적 수행법을 고수하는 기존의 불교 교단 안에 머물 수가 없었다.

이 무렵 그는 1970~80년대에 부산과 경남 산청에서 거사 중심의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쳐 상당한 호응을 받았던 백봉 김기주(白峯 金基秋·1908~1985) 거사와 인연이 닿았다. 백봉 거사 보다는 10살 이상의 연하임에도, 함께 기승 불교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정법을 펼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백봉 거사는 철야정진이나 참선 같은 방편을 사용했고 그는 '언'만을 불가피한 방편으로 생각해서 방향이 조금 달랐다. 그는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가 바로 결과"라고 생각했기에 별다른 수행법이 있을 리 없었던 것이다.

대신 그의 유일한 방편인 설법은 대단히 '현대적'이다. 그의 언어는 매우 논리정연하고, 불경과 선어록은 물론 현대과학을 비롯한 세사(世事)를 두루 꿰고 있다. 대학생, 가정주부, 직장인, 승려, 대학교수까지 각 계층의 지식인들이 법문을 경청하러 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행기니판

철야 참선법회

봉화 축서사는 매달 셋째 토요일 9시부터 익일 4시까지 선원장 무어 스님의 법문과 지도법점으로 참선법회를 병행한다. 기호선 기초 수행반, 명통의 극복, 일상 생활에서의 화두 참구법, 점점 등으로 운영. (054)672-7579

좌선 및 영염강송

서울 보림선원(02-914-6187)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부산 보림회(011-9537-8186)는 매주 수요일 7-10시 좌선 및 야청 거사의 영염강송 시간을 갖는다.

우 소나나 사야도 초청 집중수행

강릉 인월사 담대선원은 우 소나나 사야도(미얀마 마하사 수행센터)의 지도 아래 4월 21-27일 7일간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갖는다. 새벽 4시부터 밤 9시

까지 좌선, 영염, 일상관찰수행과 법문 및 명등 등으로 진행. (033)644-1686

위빠사나 집중수행

봉인사는 4월 19-23일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김연권 법사가 마하사 방법을 기초로 부처님 경전의 표적 관찰법을 병행해 사념처 가운데 법념처 중 오온과 12연기 관찰법으로 지도. (031)574-5885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다져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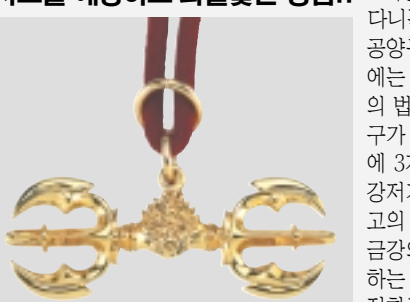


2007년 정해년은 60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살을 시작하는 어려움으로 2007년에는 자중자약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빠하지 말고 일을 벌이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 정도 막아 큰환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도산신(神)의 밭고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소멸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알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살인,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볍고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 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열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열주는 부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순금금니로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 지갑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여성용 오티노 지갑

옴마니반메흠 福 지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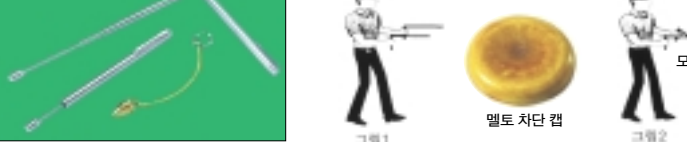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양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 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들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움없이 신통토록하게 풀린다는 신통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인 옴마니 반메흠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흠 복지갑은 사용해보는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토록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갔다.** 구입하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개원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풀리고, 부흥선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금상보병과판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 고급소거죽에 금·銀나노 처리까지 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즈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인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흠 지갑을 사용하신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원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세요

출장수맥감정비 30만원 개업 또는 부업 노후 대책도 최고



수맥파가 각종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가 속속 밝혀지고 조상의 산소 밑에서 수맥이 흐르고 있다면 집안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일간신문 특집시리즈를 본 분자가정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에도 우리집 밑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조상 산소밑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수맥감정 전문가의 신원사여 줄을 알고있다.

그러나 국내에 수맥과 수맥파를 정확히 찾아내는 인사는 스님및분과 몇분의 신부 그리고 일반인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대화에 수맥감정학과가 있고 수맥감정사무소와 수맥감정법인까지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산업의학회연구소는 2002년 일원자 30명에 대한 가정 수맥파 감정을 실시한 결과 29명의 가정에서 강력한 수맥이 흐르고있어 수맥파가 생체리듬을 파괴시켜 암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 일본이나 각국 중증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발표는 영국과 프랑스등에서 계속 발표되고 있다. 획의 입자파장에서 세사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미세한 파장이므로 오렌경원에 의해 감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